

# ‘신현수 파동’에 野, 文 겨냥 맹공… “참모진 관리 허술”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서 비판  
국민의힘 “사실상 패싱” 지적에  
유영민 “패싱 아냐… 논란 송구”  
野 “사표 결론 못 내리냐” 지적

야당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신수석은 법무부와 고위급 검사 인사 과정에서 ‘패싱 논란’으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업무보고에서 “신수석이 고위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사실상 패싱 당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겨냥한 듯 “인사권자가 결제를 하기 전에 인사를 발표한 게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최근 사태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에게 또 다른 작년의 법무부, 검찰의 여러 가지 피로도를 준 데 있어서 또 그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신수석이 고위급 검사 인사 과정에 ‘패싱 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두고 “문 대통령이 신수석을 모셔올 때 당부한 게 ‘원만한 협조 관계를 가져라’는 것인데, 이게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큰 역할이었다”며 “(패싱설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실장은 “다만 마무리 인사 확정 단계에서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자 한 것’이 있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 재가가 올라 가니까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협의됐다’고 생각했고,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 인사 협의에 데 있어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며 마무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 실장이 “통상 인사가 결정되면 인사권자 승인, 언론 발표, 전자결재 등 순서로 진행하고 그 과정은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대통령 인사는 국법 상의 행위로 승인된다”며 “결제하는 순간 대통령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 (인사를) 발표하거나 ‘대통령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냐. (과거에도) 전부 그렇게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실장은 고위급 검사 인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 대한 지적을 두고 “통상 인사가 결정되면 인사권자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언론에 발표한다. 이어 (인사권자가) 전자결재를 하는 등 과정이 정확하게 지켜졌다”고 반박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고위급 검사 인사 최종 결제를 누가 올렸냐는 질의에 “그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영민 실장이 ‘신수석이 사표 낸 상태이고, 지난 월요일(22일)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했다. 사표 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지금 (신수석의) 사표는 제출된 상태인데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도, 반려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냐”고 비판했다.

유 실장은 주 원내대표의 지적에 “(신수석은)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수차례 반려가 아니고 계속 설득을 했다. 신수석을 모셔올 때도 기대한 역할이 있고, 아직 그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의미라 (대통령의 판단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며 “그러나 일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여러 고민을 하고 결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적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수석 사의 표명을 해프닝으로 비취볼 때 민정수석 의견이 존중되지 못했고, 신수석과 대통령 간 약속은 거짓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실장은 “(인사) 제청 과정에서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인사 문제를 협의하고 조율하게 돼 있다. 통상 인사에 대해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 의견을 들어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라며 “거기에 민정수석의 결제 라인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희용 의원은 유 실장에게 “한 언론을 보면 인사 협의 과정에서 중앙지검 거취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박 장관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냐’며 신수석을 몰아세웠고, (이에) 신수석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 여기서 박 장관이 말한 우리 편은 누구냐”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해당 질문에 “언론 내용을 봤지만 확인은 안 해봤다. 아마 저런 말을 (박 장관이 신수석에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 짐작한다”고 짧게 답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2.5단계까지 3분의 2 등교

# 초·중등 학부모 70% “찬성” vs 교사 “반반”

찬성 이유 “학교생활 적응 문제”  
반대 이유 “거리두기 어려워”

학부모들 가운데 70% 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2.5단계까지 학생 밀집도 3분의 2로 등교를 확대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3단계 전까지 학생들의 등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등교 원칙을 완화해 등교 인원을 ‘3분의 2’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학부모 4명 중 3명이 찬성했다. 초등학교 학부모 10만5268명 중 74.2%인 7만8144명은 찬성했고 2만7124명(25.8%)은 반대했다. 중학생 학부모는 예비 중1 13만4288명 중 2만6173명(76.3%)이, 다른 학년 학부모 2만1647명 중 70.7%가 각각 찬성했다.

반면 교사들의 의견에서는 ‘반대’ 비

율이 커지며 찬반이 엇갈렸다. 초등학교 교사 6529명 중 3726명만이 찬성했다. 57.1%로 과반수다. 나머지 42.9%인 2803명은 반대했다. 중학교 교사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 4200명 중 2172명(51.7%)은 찬성, 2028명(48.3%)은 반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중학교 1학년 ‘매일 등교’로 등교 원칙을 완화하는 데 대해 학부모 70% 이상이 찬성했다. 특히 중등 입문 학년인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찬성 의사 비율이 높았다.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등교 확대 방안에 대해 예비 중학년 1학년 학부모의 71.8%가 찬성했다.

반면 중학교 교사와 다른 학년 학부모는 절반 가까이가 반대에 찬반이 엇갈렸다. 다른 학년 학부모는 55.2%가 찬성했으며, 교사는 약 53%가량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초등학교 및 예비 중1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교생활 적

응’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1 매일 등교에 찬성한다고 밝힌 예비 중1 학부모 중 59.4%가 ‘학교생활 적응’을 이유로 꼽았으며, 다른 학년 학부모는 64.2%, 교사는 73.3%가 같은 이유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1을 제외한 중학교 기타 학년 학부모에서는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향상’이 비슷하게 높았다.

등교 확대 반대 이유로는 ‘학교 내 거리두기의 어려움’이 가장 컸다. 반대한다고 밝힌 예비 중1 학부모 61.3%는 ‘학교 내 거리두기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으며, 다른 학년 학부모는 교사는 63.5%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19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상대로 등교 확대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학부모 16만1203명, 교사 1만729명이 설문에 답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여대 교수평의회가 24일 학내 5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 앞에서 ‘제9대 서울여대 승현우 총장 취임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여대 교수평의회

## 서울여대 교수들, 신임총장 사퇴 요구

‘총장 취임 반대’ 집회 열어  
“이사회 구성원 투표절차 무시”

서울여대 교수들이 신임 총장 취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여대 교수평의회는 24일 10시 30분 학내 5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 앞에서 ‘제9대 서울여대 승현우 총장 취임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여대는 지난해 12월 간선제로 시행된 신임 총장 선거에서 대학 구성원 투표를 거쳐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추천한 1순위 후보 대신 정의학원 이사회(이사장 송재식)가 2순위 교수를 총장으로 선발하면서 내용을 겪고 있다.

주창윤 교수평의회장(언론영상학부 교수)은 “교수평의회는 학내 구성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며 지난달 20일 승 총장을 불신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에 실시한 총장 선거 1차 교수 투표 결과, 김명주(정보보호 교수) 후보가 88표(42.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기숙(기독교학 교수) 후보가 49표(23.9%)를, 승현우(정보보호 교수) 후보가 33표(16.1%)를 얻었다.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2차 결선투표에서는 김명주 후보가 119표(63%)를, 김기숙 후보가 70표(37%)를 받았다. 이사회가 선임한 승현우 후보는 2차 교수투표조차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12일 실시한 직원투표에서도 김명주 후보 58표(65.9%), 이창석 후보 15표(17.0%), 승현우 후보 9표(10.2%)였다.

같은 해 11월 30일 총장추천위원회 투표결과 역시 김명주 후보와 승현우 후보가 각각 11표(73.3%), 4표(26.7%)를 받았다.

하지만 정의학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이사회를 열어 승현우 정보보호학과 교수를 제9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4년이다.

결국 교수평의회는 지난달 2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이사회가 선임한 승현우 총장을 불신임하기로 의결했다.

주창윤 회장은 “이번 총장선거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간선제도 아닌 사실상 임명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진 기자

## 휴가 병사, ‘모바일 승차권’으로 기차 탑승

국방부, 코레일과 손잡고 서비스

국방부는 병 휴가시 ‘코레일톡’ 앱에서 열차 승차권 예약과 발권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병 철도 예약 서비스는 지난

해 7월 국방부가 휴대전화 전면사용과 함께 제공한 ‘청년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청년DREAM, 국군드림’ 앱은 철도 승차권 예약 후 TMO(국군 철도수송 지원반)에 방문해 승차권을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KORAIL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코레일톡’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철도 승차권’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 이로써 휴가 병들은 철도예약부터 승차권 발권까지의 전 과정이 모바일 기능을 통해 해결돼, 개인 휴대폰에서 ‘모바일 승차권’ 확인만으로도 바로 열차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문형철 기자 captim@